



로맨티스트로 사는 법



김상우 / YTN경제2부 차장

누가 봐도 영락없는 50대 이상의 여성. 그러나 이 여성은 서울 강남의 한 재즈 카페에서 청바지에 반팔 스웨터를 입고, 롱부츠를 신고 10대는 물론 20-30대 젊은이도 좀처럼 외우기 힘든 재즈 풍의 노래를 부른다. 약간의 똥배를 지닌 할머니 특유의 몸매를 좌우 앞뒤로 약간씩 흔들어대는 이 할머니 가수의 노래는 아들딸 또는 손자뻘 되는 재즈 카페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조금만 용기가 있다면 저 할머니 가수를 테이블로 모셔와 맥주라도 같이 한잔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든다. 아 저 나이에도 저렇게 입고 그것도 저런 노래를 이런 무대에서 어떻게 하면 부를 수 있을까? 노래도 노래지만 언밸런스한 (?) 몸매에도 청바지를 입을 용기는 어디서 나오나... 이러 저러 잡다한 생각까지 들게 만든다. 특히 미래를 약속하려고 시도중인 선남 선녀가 촛불을 놓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이 할머니 가수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무언의 대화가 무르익는다. 눈빛으로 나누는 무언의 대화. “저 할머니 가수 멋있다. 저렇게 살자. 우리!”

늙는다는 것은 일상 생활에 익숙해진다는 것이 아닐까. 익숙해지면 감정이 무뎌지고, 감정이 무뎌지면 새롭게 보이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진다. 남녀간 특유의 설레임도 느낄 수 없다. 남들 하는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 살게된다. 행동은 물론이고 옷 입는 것부터 나이별로 크게 달라진다. 특히 자신의 삶 보다는 남들 눈에 투영된 자신의 삶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 특유의 문화와 제도는 좋아하는 것을 하겠다는 개인 의지를 무디게 만든다. 예컨대 노총각, 노처녀면 어떡고, 홀아비에 과부면 어떤가, 왜 이들에 대해 보태주는 것도 없으면서 입방아를 찧는가. 이런 입방아는 ‘익숙해진 삶’을 이어가는 자신처럼 그들에게도 ‘익숙해진 삶’을 이어가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개개인을 더 짧게 살게 도와주는게 아니라 일찍 늙게 만드는 것이다.

재즈 카페에서 청바지를 입고 무대에 선 할머니 가수. 그리고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나뉘던 무언의 눈빛 대화. 그 때 그 대화에는 분명 ‘우리, 저렇게 살자’라는 로맨스와의 다짐이었다. 촛불을 앞에 두고 상대방 손을 잡을 때의 그 짜릿한 정신적, 육체적 감정과 다짐. 그것을 잃는 순간, 또는 그 때 그 순간의 다짐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는 늙은 것이다. 늙지 않는 비법, 거꾸로 젊음을 간직하는 비법은 바로 이런 ‘익숙해진 삶’을 경계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진정한 로맨스 역시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본다. 일상생활에서 늘 부딪히는 일과 사람 바로 그 속에서 새로움과 설레임을 느낄 때, 느끼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곧 짧게 사는 것이 아닐까 싶다. 진정한 로맨티스트는 ‘익숙해진 삶’을 늘 경계하고 매일 칼잡이처럼 무뎌지는 감정의 칼날을 간다. 그리고 그 로맨티스트는 일상생활에 묻혀 있는 사람과 그를 둘러싼 이야기 보따리에서 새로움을 찾고 즐거움을 느낀다. **PPPK**